

심리학 개방성에 따른 기독교상담의 성향

박 기 영
(D.C., 성결대학교)

국문초록

기독교상담은 상담자의 신학적, 심리학적 배경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다르며, 기독교상담의 성향을 결정짓는 요인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상담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상담자의 심리학에 대한 개방성으로 보았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상담자의 심리학 개방성에 따라 기독교상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개방유형이다. 이는 상담자가 심리학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기독교상담에서 성경이나 신학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심리학을 신뢰한다는 측면에서 인본주의적이며, 기독교상담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수용유형이다. 이는 상담자가 심리학을 받아들이되 기독교상담에서 성경신학적인 원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신학적인 면보다는 심리학에 대해서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방유형보다는 보수적이다. 셋째, 분리유형이다. 이는 기독교상담에서 신학의 영역과 심리학의 영역을 분리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동등하게 여기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신학과 심리학의 공통영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호하다. 넷째, 여과유형이다. 이는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심리학을 검증하여, 활용 가능한 심리학적 결과만을 기독교상담에서 활용한다. 이러한 입장은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견해로써, 다양한 일반심리학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다섯째, 폐쇄유형이다. 이는 성경만으로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심리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해서 닫힌 자세를 취하는데, 일반은총으로써의 심리학을 거부하는 약점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기독교상담자의 심리학 개방성은 상담자의 신학적 성향과 상호연관성이 있다. 즉 기독교상담자가 신학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심리학에 대해서 개방적이며, 보수적일수록 심리학에 대해서 폐쇄적인 견해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복음주의 입장의 기독교상담은 심리학을 신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활용해야하며,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복음주의적 기독교상담자는 발견된 진리로써의 심리학을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신학과 심리학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 개방유형, 수용유형, 분리유형, 여과유형, 폐쇄유형

I. 여는 글

오늘날 기독교상담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상담활동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독교상담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나 평신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매스컴에 널리 알려진 기독교상담기관을 찾기도 하며, 또한 가까운 상담소나 교회 단위로 운영하는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어떤 곳에서 기독교상담을 배워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 때로 여러 기독교상담기관을 순회하면서 다양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사전 지식이 없이 선택한 기독교상담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배우다가, 다른 기독교상담기관이나 기독교 상담 전공이 개설된 대학원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상담의 성향이 자신과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기독교상담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기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독교상담은 일반상담이나 목회상담과는 다른 독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상담자에 따라서도 그 성향이 다양하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상담자의 성경관에 따라서 상담과정에 성경을 사용하는 견해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 Jay E. Adams와 같이 보수적인 학자는 성경만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심리학적 자료를 거부한다. 그러나 Donald E. Capps는 성경의 분별없는 사용은 이득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담자가 성경을 적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¹⁾ 특히 Seward Hiltner,

Carroll Wise, Wayne Oates와 같은 목회신학자들도 상담에서 성경사용이 내담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과정에 성경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이러한 견해는 상담자의 성경관에 따라서 기독교상담의 기법이나 성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기독교상담의 성향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을 기독교상담자의 심리학 개방성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기독교상담자들이 심리학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상담에 심리학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독교상담학자가 있는가하면, 심리학을 배척하는 상담학자들도 있다.²⁾ 이는 심리학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기독교 상담의 성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독교상담에서 심리학 개방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심리학 개방성에 대한 입장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기독교상담자들은 자연스럽게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으로 나아가게 되며, 자신의 신학적 견해에 근거해서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II. 펴는 글

1. 심리학 개방성의 의미

심리학 개방성이란 기독교상담자가 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로써 개방적인 태도로부터, 폐쇄적인 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입장이 있다. 효율적인 목회돌봄을 위해 심리학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보지만, 급진적 보수주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Adams는 그 견해를 달리한다. 그는 Freud로부터 시작된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가정들이 아무런 검토도 없이 목회상담에 수용된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지 Freud의 이론에만 국

한되지 않고 다른 여러 인본주의 이론에도 적용된다고 믿었다. 즉 그들은 Rogers의 이론이나 실존주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 가정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 용서, 은혜, 성경 등은 상담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진영의 목회상담자들은 통찰, 무의식, 어린 시절의 배경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복음주의 전통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목회돌봄이 심리학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은 멀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마 28:19-20)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복음전도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다. 그런데 목회상담운동은 일부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전도와 교육이 두 번째 자리로 밀려 나도록 했고 상담이 첫째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뒤바꾸어 놓은 일이다.³⁾ 로마 카톨릭 신부이자 사회학자의 관점을 가졌던 Andrew M. Greely는 이러한 점에서 심리학이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았다. 그는 여러 곳에서 “치료집단들은 예배를 대치하고, 주말을 휴양기간으로 맞이하여, 민감성 훈련이 명상으로 대치되고 있다. 로마 카톨릭 오순절주의 기도처에서는 행동조절 기법이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는 실마리로써 거룩한 규칙과 정경의 율법을 대치하고 있다. Freud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Freud처럼 생각되고 있다.”⁴⁾고 했다.

심리학은 교회 안 밖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주는 학문의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문제점들과 비진리, 그리고 비성경적인 면도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심리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온통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에 동의할 수도 없다.⁵⁾ 기독교인과 교회는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지만 그 책무의 한 부분으로써 기독교인은 서로를 세워주고 손을 뻗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심리학의 침투로 말미암아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 기독교 신앙은 점차

로 악화되는 위기에도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심리학 개방성은 곧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심리학 개방성에 대한 입장

전통적인 목회돌봄과 20세기 전반부에 부상한 심리학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Roger Hurdling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동화적 입장(assimilative), 반동적 입장(reactive), 그리고 기꺼이 대화하려는 입장(dialogue)이 그것이다.⁶⁾

첫째, 동화적 입장이란 교회와 새로운 심리학적 이해 사이의 동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1890년대에 오하이오 주 출신의 회중 교회 목사였던 Washington Gladden은 성직자들과 의료인들 간의 긴밀한 유대를 촉구했고, 1905년에 메사추세츠 주 보스톤의 한 성공회 그룹은 영혼의 돌봄은 심리치료라는 과학에 의해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마누엘운동(Emmanuel Movement)을 시작했다. 목회자 후보생들을 정신병원이라는 환경 속에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척했던 Boisen (1876-1966)은 한창 부상하고 있는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이 Freud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적이고 인격주의적인 심리학의 사상과 실재를 아주 많이 받아들였다. 즉 정신 분석을 종교의 영역에 받아들여서 목회돌봄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심리치료 방법인 정신분석을 선호하고 도입하였던 최초의 목회신학자였다.

Leslie Weatherhead도 감리교 목사로서 정신분석 방법을 도입해서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성도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들의 활동은 미국과 영국에서 목회상담이 출현하는 데 강한 영향을 주었다. 미국 목회상담의 주요 인물 Wise와 Hiltner는 모두 Boisen의 제자였으며, 영국에서는 Weatherhead의 영향을 받은 Bill Kyle이 영국의 목회상담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Kyle이 죽은 후 영국의 목회상담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⁷⁾ 그러나 이와 같

이 심리학을 수용하는 경향은 1900년대 초부터 1970년대 Adams의 출현까지 지속되었고 현대에도 그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김용태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목회상담의 역사를 '수용의 역사'라고 했다. 이는 목회상담의 배경이 되는 임마누엘 운동과 임상목회교육 운동 등은 일반심리학에서 비롯된 여러 상담이론들을 수용하면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목회상담은 심리학의 이론들을 수용함으로써 목회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Dictionary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목회돌봄과 상담사전』은 목회상담운동에 대한 역사를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⁸⁾ 그 항목들은 배경, 시작, 발달, 전문화, 확산 그리고 현재 경향이다. 각 항목들은 목회상담의 발달에 고유하게 기여한 역사들을 담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동화적 입장을 기독교상담이 심리학을 수용한 개방적 시기라고 보았다. 일반심리학의 이론들과 방법들은 목회돌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심리학을 비판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주의자달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둘째, 반동적 입장으로써 이는 심리학의 수용에 반발해서 나타난 입장이다. 이들 가운데는 일반심리학을 추방하려는 보수적 입장에서부터 심리학의 파괴적 측면을 지적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Paul C. Vits는 심리학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기독교상담학자들을 Bobgan, Mary Stewart Van Leeuwen, William K. Kilpatrick, Dave Hunt's & T. A. McMahon, Don S. Browning, Adams 등으로 보았고, 이 중에서 심리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Adams를 꼽았다.⁹⁾

또한 Karl Barth의 영향을 받아 목회돌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을 강조했던 Eduard Thurneysen(1888-1974), Adams는 Mowrer의 반심리학적 경향을 권면적 상담으로 발전시켰다. 심리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며 모든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로 환원시켜 버린다.¹⁰⁾ David G. Benner는 이 영적인 환원주의가 모든 심리치료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항하는 것으로 만든다고 주

장했다.¹¹⁾ 이러한 견해는 옳을 위로하던 친구들의 접근방법과 같이 모든 문제들을 개인적인 죄의 문제에서 규명하려 한다. 동화적 입장이 특별계시를 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반계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반동적 입장은 종종 이런 흐름을 역전시킨다. 김용태는 이 시기의 기독교상담을 '거부의 역사'로 보았다.¹²⁾ 목회상담이 많은 발달을 이루는 동안 복음주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목회돌봄을 제공하던 학자들이나 상담자들은 목회상담의 주류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복음주의자들은 심리학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반심리학의 철학적 가정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 용서, 은혜, 성경 등은 상담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반동적 입장을 심리학적 결과물을 거부하는 폐쇄적 입장이라고 보았다. 복음주의자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 대화적 입장으로 이들은 창조세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된다. 이 폭넓은 입장의 지지자들 중에는 신학적 통찰과 심리학적 통찰 사이의 통합점을 찾고자 하는 보수적·자유주의적·급진적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인물로는 영국의 Frank Lake, Robert Lambourne, Alastair V. Cambell, Stephen Pattison 등과 미국의 Thomas C. Oden, Browning, Capps, Mary Stewart Van Leeuwen, Benner, John Carter & Clyde Narramore, Gary Collins, William T. Kirwan 등이 있다. 대화적 입장이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인 입장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이 모델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위험하다. 통합은 쉽게 혼합주의가 되는데, 이것은 이교와 기독교를 혼합하여 신앙을 훼손시키는 저급한 기독교를 만드는 것과 같다.¹³⁾

이러한 혼합주의 적인 통합위협성을 막기 위해서 Lawrence J. Crabb은 통합모델 중에 '이집트인들로부터의 노획(spoiling the Egyptians)'이라고 명명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명칭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할 때 부추와 양파를 남겨놓고 황금과 다른 귀중한 물품들을 이집트로부터 가지고 나온 것에서 유래한다. 이 모델의 의미는 기독교인으로서 신학과

갈등을 일으키는 심리학은 뒤에 남겨 좋고 성경과 모순이 없으면서도 매우 유용한 심리적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이 모델은 신학과 심리학의 상호교류적인 사고를 촉진시킨다. 이처럼 기독교상담의 역사는 목회상담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통합을 향한 노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심리학에 대한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그 성향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독교상담의 성향을 기독교상담자의 심리학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개방유형(opened type), 수용유형(accepted type), 분리유형(separated type), 여과유형(filtered type), 폐쇄유형(closed type)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심리학 개방성에 따른 기독교상담 유형

1) 개방유형

개방유형은 심리학의 학문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입장으로써, 기독교상담이라고 할지라도 심리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한 진리로서 자연과학, 철학적 논리, 혹은 인간의 속성연구들은 그 몫을 해내고 있고, 심리학, 정신병치료, 그리고 다른 사회과학들에 의해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속성에 대한 심리학적 결론들 중 어떤 것들은 분명히 기독교 윤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된다. 그러나 그러한 심리학적 결론들을 경험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시험해 본다면, 그런 심리학적 학문의 결과들이 지역교회 안팎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모델의 기독교상담은 일반상담과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 차이가 미미하다.

(1) 심리학의 유익

Deborah van Deusen Hunsinger는 신학이 심리학보다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심리학이 신학에 준 세 가지 선물을 언급했다.¹⁵⁾

그 첫째는 무의식 이론으로써 기독교상담자는 이러한 인간 정신세계의 창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 이해가 그의 무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의식에 대한 지식은 자신에 대한 탐구에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만약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무의식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담자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둘째는 치유의 상황으로써 목회관계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특히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전이현상을 이해하게 한다. 전이현상을 이해하는 유능한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격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는 심리학은 상담의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심리학은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어떻게 공감을 하며, 통찰력을 최대화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내담자의 저항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상담자는 언제나 상담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심리학의 지식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을 하려는 사람은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 개념과 기술 중 일부를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만 활용하는 상담을 기독교상담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심리학에도 한계가 있다.

(2) 심리학의 한계

심리학은 사람들을 목적지로 가는 길 중 일부분을 가리키는 지도이다.¹⁶⁾ 그것이 끝나는 지점부터 신학이 인계를 받아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심리학은 본래부터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계시인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더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발견된 진리이자 일반계시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모든 지식을 제공할 수 없다. 특히 심리학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지 않는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피조물을 향한 특별한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의사소통은 타락한 이후에 그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현재 인간은 일반계시조차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인간들은 벗어나기 힘든 편견을 갖게 되었다.¹⁷⁾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계획하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별계시의 초점은 이 계획을 인류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시인 성경은 기독교상담에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계시인 심리학의 한계성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기독교상담자가 조심해야 할 일은 양극단 중의 하나에 빠지는 것이다. 첫째는 성경을 마치 모든 심리학적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상담교과서로 인식하는 것이며, 둘째는 성경을 기독교상담의 부차적인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추론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은 영적 성장의 원천일 뿐이므로 상담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성경의 심리학적 깊이는 무시한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정도로 인간의 심리에도 관심을 가지셨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가 성경과 신학적인 심리학을 제쳐놓고 단지 일반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만을 의지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수용유형

수용유형은 발견된 진리로써 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입장이다. Jones는 심리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으로 세 가지 가정을 세웠다. 첫째, 심리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공될 만한 가치가 있다. 둘째, 심리학적 인간 이해로만 사람들 도우려고 시도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시도이다. 셋째, 단순히 '예수냐 프로이드냐?' 하는 이분법을 피해야 한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대치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론적인 접근은 피해야 한다. 즉, Stanton L. Jones는 David Powlison과 함께 목회상담자는 심리학적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그렇

다고 성경적인 것에 기초를 둔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¹⁹⁾

예를 들어 Lovaas 치료 프로그램은 표면적으로 극단적인 Skinner 행동주의 이론의 물질주의적이고 결정론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는 자폐증과 이상 행동 치료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의심할 여지없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만약 자폐증에 걸린 아동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킨다면 평생 동안 기관의 신체를 저야 하는 확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²⁰⁾ 비록 성경이나 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치료방법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를 수용한다.

(1) 심리학의 역할

수용유형은 현대의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도와주고 보조하는 일에 쓰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심리학도 기독교상담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심리학이 모든 치료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죄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 같은)나 일반적인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예를 들면, 가정과 교회에 근본적인 명령의 문제) 등에 근접할 때는 신학과 심리학의 일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핵심적인 교리와 공통된 부분이 작거나 관련된 내용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²¹⁾ 이러한 점에서 심리학은 기독교상담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심리학 체계 속에서 이해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심리학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최종 답변을 줄 수 있다는 허위 주장을 만나게 될 때마다 맞서야 한다. 그렇다면 심리학과 상담 및 심리치료의 적절한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남녀의 병리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반응을 없애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결혼의 폭력 구조를 감소시키는 것,

그리고 그 외의 인간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한다. 심리학은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인간경험에서 무시되었던 측면을 가치 있게 만들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내담자로 하여금 자아 인식과 실제적 지혜를 탐색하도록 용기를 준다.²²⁾ 그렇지만 심리학이 내담자로 하여금 곧 구원을 이루게 하지는 않는다. 즉 심리학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 때에라도 내담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가 내담자의 영혼을 진실로 치료하기 원한다면 그들을 은혜 안에 성장하는 장소인 교회로 향하도록 직접, 간접으로 이끌어야 한다.²³⁾ 심리학은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2) 성경의 역할

수용유형은 성경을 구원의 특별계시임을 인정하지만 기독교상담을 위한 교과서는 아니라고 본다. Stanton L. Jones와 Richard Butman은 “성경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를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핵심적인 기반이 되며 긴밀한 연결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성경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지식의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답변을 모두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상담훈련을 위한 충분한 안내는 할 수 없다. 성경은 영감을 주고 소중하지만 제한적 범위의 계시이며, 그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에 대한 종교적 현시 및 믿음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성경은 인간 존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천명하고 있지는 않다.”²⁴⁾고 했다.

성경이 기독교상담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성경이 상담에 부적절하거나 일반상담 및 심리치료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는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구조의 측면에서 잘 짜여진 교과서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담적 교훈과 의미가 넘쳐 흐른다. 한 마디로 성경은 모든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백과

사전이 아니라, 모든 비전을 가능하게 하고 능력을 주는 안경들을 제공한다.²⁵⁾ 심리학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명백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명백한 특별계시이다.

3) 분리유형

분리유형은 신학과 심리학 각각의 연구 영역을 인정하고, 서로의 권위를 동등하게 인정하며, 그 영역을 분리하는 입장이다. 즉 신학적인 영역에 속한 것은 신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심리학적인 영역에 속한 것은 심리학적인 해결을 하고자 한다.

(1) 진리는 하나라는 전제

Malcolm Jeeves는 진리는 하나이며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간에는 궁극적으로 상충될 수 없다고 보았다.²⁶⁾ 그렇다고 심리학적인 결과와 성경적인 진리 사이에 명백한 갈등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이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지식을 표방하거나 또는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는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심리학적 실제와 성경적 요소 사이에 갈등이 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학과 심리학 간의 모든 갈등은 성경적 실제와 심리학적 이론의 차이가 아니면, 심리학적 실제와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오는 차이, 또는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인한 차이가 될 것이다.²⁷⁾

Meier, Minirth, Wichenn & Ratcliff 등도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의 명확한 발견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약 신학과 심리학 사이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는 성경적 해석의 오류나 과학적 방법의 오류 또는 둘 다의 오류에서 기인한다.²⁸⁾ 성경의 자료와 자연 또는 인간의 자료, 이 두 정보의 근원은 정보의 기본 자료를 구성한다. 성경은 영감적이고 오류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연 또는 인간의 자료는

실수할 수 있고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근원들은 자료 분석을 위한 독특한 방법이 있다. 성경해석학은 주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사용되는데 반면, 과학적인 방법은 자연, 인간을 연구하는데 사용된다.

(2) 신학과 심리학의 차이

진리는 하나이며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 모호하고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학과 심리학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고 해도, 다른 관점이라기보다는 반대의 관점에서 서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이외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성화는 기독교인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기독교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현이다. 그러나 심리치료는 자아실현이 목적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근원)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과정) 주에게로(목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는 말씀에는 ‘방법’이 성경적인 것이 되려면 세 가지 국면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⁹⁾

첫째, 성경적 상담은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심리치료는 인간적인 개념들,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인간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그 근원이 인간 안에 있다. 둘째, 성경적인 상담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도구로 삼지만, 심리치료는 인간적인 방법들, 즉 인간에 의해서 고안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과 계산에 따라 쓰이는 방법들을 적용한다. 셋째, 성경적인 상담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심리치료가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간의 자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학과 심리학 간에는 인간 이해의 관점, 방법, 그리고 상담의 목적에 차이가 있다.

(3) 분리될 수 없는 통합

Hunsinger는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A.D 451년 칼케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가르침을 근거로 ‘칼케돈 유형(The Chalcedonian Pattern)’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³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칼케돈의 정의는 목회상담에 적용되는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기틀이 된다고 보았다. 칼케돈의 유형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용어는 혼돈과 변화 없이 함께 존재하는 관계에 자리 잡고 영속적으로 구별된다. 이를 신학과 심리학에 적용할 때 두 학문이 사랑과 증오, 신뢰와 불신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두 학문은 그 주제들을 확연히 다른 의미로 다루게 된다. 둘째, 이 용어들은 혼돈과 변화 없이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로 공존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써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에 그들을 전체로써 이해하려고 한다면 신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을 분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 용어는 논리적으로 다른 용어에 비해 우선시 된다. 두 용어 사이에 개념의 모순됨이 발생할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앞서는 용어가 개념을 지배하게 된다. Karl Barth는 이것을 일컬어 ‘과괴할 수 없는 순서(indestructible order)’라고 불렀다.³¹⁾ Barth에 의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의 칼케돈의 순서는 그의 신성이 인간의 특성을 앞선다는 논리적인 순서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상담에서 신학과 심리학이 응용될 때에 신학이 심리학보다 논리적으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4) 여과유형

여과유형이란 심리학의 학문적 자료들을 신학적으로 여과한 후에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활용하는 기독교상담이다. 이러한 견해는 심리학이 기독교상담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해를 끼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학적인 검증을 통해 걸러내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으로부터 현대 심리학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목회자나 기독교상담자는 지금보다도 더욱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상담의 기초를 신학이 아닌 일반심리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Ellen T. Charry는 신학적 기초 하에 기독교상담을 하거나, 신학의 범주 안에 일단의 일반심리학의 가르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³²⁾ 그렇게 될 때 신학적 방법론 안에서 영혼을 돌보는 교회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

Collins는 심리학적 결론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어도 여섯 가지 영역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성경은 모든 심리학적 활동의 중심점이 되고, 심리학적 결과물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견고한 핵심이 된다.³³⁾ 여섯 가지의 영역 가운데 세 가지는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가지는 프로그램들과 더 관련되어 있다. 첫째, 심리학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둘째, 목회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로부터 상담의 요청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도와 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셋째, 평신도들 역시 동료들을 도와 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학적 상담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기독교 신앙을 향한 심리학적 도전에 심리학적-변증적 방법으로 반박하는데 필요하다. 다섯째, 성경적인 기초가 빈약한 부분에서 공개적인 자조(self-help) 프로그램으로 심리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예방적인 측면에서 심리학은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결혼 전 상담이나 죽음과 같은 미래의 위기를 예견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일 등이 포함된다.

Carter와 Narramore는 심리학 요소들을 활용하고 개방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했다. 이들은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상담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와 질서정연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복잡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목회자들이 심리학적 통찰에 힘입어 인간의 전반적인 욕구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심리학은 그 자체에서도 모순이 있다. 행동주의자는 인본주의자와 충돌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상심리학자들은 다른 학자와 대립한다. 이러한 심리학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한계점들 때문에 인간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회심리학과 집단심리학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현대의 문제에 대해 관여하게 된 데에는 심리학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³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리학 이론과 연관 짓는 것은 비단 심리학자들의 과업으로만 국한될 수는 없다. 신학자, 목회자, 기독교 교육자들 역시 심리학과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적 계시와 심리학적 이론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1) 상호보완을 통한 이해

Hunsinger는 신학과 심리학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았다. 두 학문 모두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이며, 그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안내를 제시한다. 때로 정면으로 대립하는 부분도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상호 모순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두 학문을 서로 다른 분야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이다.³⁵⁾

Paul Tournier는 과학적인 정신의학과 심리학에 의해 발견된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한다. 그는 Freud나 Adler, Jung, Flankl, 또는 Rogers의 심리학적 업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모든 상담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Tournier는 자기와 다른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며,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³⁶⁾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입장은 그의 방법론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는 적절한 때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통찰을 나누거나 심리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³⁷⁾ 또한 그는 모든 치료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믿으며,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통해서 일하기

로 걱정하시기도 하지만 무신론자를 통해 일하기도 하신다고 믿었다.³⁸⁾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기독교상담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상호보완이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상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심리학에 근거한 과학적인 기법이 상호보완될 때에 더욱 유익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상호보완이라는 의미에는 성령의 능력이나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뉘앙스를 갖게 한다.

(2)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이유

하나님은 신적인 지혜로 성경 안에 모든 진리를 계시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 비록 성경이 심리학과 상담주제에 대하여 진리와 권위로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완전한 심리학 혹은 상담교재가 되도록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돕고자 하는 기독교인은 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기법과 생물학적, 인식론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기초영역에 있어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³⁹⁾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견해로 보면 Wayne Oates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지도자는 상담을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지 않다.

목회자의 선택은 “상담을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잘 훈련받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할 것이냐 훈련받지 않고 서툴게 상담할 것이냐”⁴⁰⁾의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다양한 성도들의 영적 이면서도 심리적인 욕구의 문제들의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심리학을 신학적으로 검증

심리학에 관한 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심리학을 시험하는 궁극적 권위인가, 혹은 심리학적 통찰들과 결론들이 우선하며, 성경적인 가르침을 현대의 심리학으로 재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복음주의 신학협회(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ETS)에 소속된 McQuilkin은 이러한 주제를 언급하면서 다섯 가지 수준을 제시하면서 수준이 더 높아질수

록 학문분야에 대한 성경의 '기능적 통제'도 커진다고 했다.⁴¹⁾ 가장 높은 수준은 주제가 성경과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그 개념들이 성경에서만 나와야 하는 영역은 신학과 기독교철학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는 심리학을 신학보다 아래 단계인 두 번째 높은 수준의 통제학문으로 보았다. 그 내용은 성경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요 내용이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경험적 연구와 실험에 의하여 확장되는 영역이다.

두 번째 높은 영역의 주제는 인간들의 속성과 인간관계이다. 이는 너무 광범위하게 성경의 주제들과 겹쳐지기 때문에 성경은 심리학에 대하여 많은 통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성경이 심리학의 교재하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들과 행동에 대한 이해는 '경험적 연구와 실험에 의하여 확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특히 동물심리학에 반대되는 인간심리학)에 대한 성경의 통제는 지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Michael Polanyi는 각각의 학문에는 '계층화된 순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각각 상위 개념은 그 보다 하위 개념들에 의해 불명확한 경계를 통제한다고 했다. 그리고 상위 수준의 개념은 하위 수준의 것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Polanyi의 계층적 계급구조에서 신학은 심리학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는 신학은 심리학이 정의하지 못한 부분의 경계를 정의하고 있지만, 심리학은 그들의 고유한 영역에서 수집한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신학은 심리학의 자유로운 역할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리학적 가설의 범주 내에서 하나님과 인간,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이나 신학을 추론해 낼 수 없다. 그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세계의 일들을 설명하려는 것을 '특히 받은 허튼소리'라고 보고 있다.⁴²⁾ 복음적인 심리학적-변증가는 성경이 심리학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신조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⁴³⁾

5) 폐쇄유형

폐쇄유형은 기독교상담에서 심리학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하고, 심리학의 자료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 Thomas S. Szasz는 "심리치료의 기

본적인 요인들에는 종교, 설득, 억압 등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과학인 것처럼 가장하는 종교가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위장된 종교"⁴⁴⁾라고 보았다.

Vitz는 인본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도취적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심리학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였다.⁴⁵⁾ 심리학은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하나의 종교로써 존재하고 있으며,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심리학의 추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점점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⁴⁶⁾

Carter와 Narramore는 복음주의 교회가 심리학을 거부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했다.⁴⁷⁾ 첫째, 심리학은 자연주의적 설명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성경적인 초자연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즉 복음주의자들이 심리학과 융화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초자연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심리학 이론들은 인간 존재, 인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추측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추측들 가운데는 성경의 확증과 반대되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Rogers와 같은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선함(Goodness)'을 강조하는 치료 방식은 복음주의적 접근과 상반된 견해이다. 셋째, 심리학적 인간관이 결정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무책임한 태도를 조장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간론의 개념은 자유의지, 결정론, 개인의 책임 등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넷째, 성적 충동을 핵심으로 하는 Freud의 견해는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이다. 이들이 염려한 것은 치료방법을 성적 충동의 억제와 연결시키게 되면 성경의 윤리적 요구를 침해하고 나아가 도덕적 수준이 격하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심리학이 '사악한 것'이며 성경말씀을 삶의 기초로 두고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심리학으로부터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다. 다섯째, 신학에서 인식론의 강조이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신학자들은 정확한 신학적 진술에

만 몰두한 나머지 종종 정서의 역할과 기독교 생활 속에서의 인격의 발전에 대한 이론을 수립하는 일을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인격의 발전 등의 문제보다 인식론적 문제, 개념, 사상의 역사 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삶의 정서적, 해석적 측면까지 희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정서란 있으면 성가신 것으로 치부하는 듯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순수하고 객관적이며 지성적인 신학이 인간 본성에 내재한 주관적 요소로 인해 손상을 입을까 걱정하여 심리학과의 합류를 피하게 되었다. 사실 이 문제는 심리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의 여러 갈등의 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것이다. 신학자들은 흔히 심리학자들로부터 너무나 인식론적이며 추상적이거나 지식 위주라고 비난받는데 반하여 심리학자들은 너무나 주관적이거나 감정 위주로 흐른다는 말을 듣는다.

(1) 성경의 충분성

기독교상담에서 심리학적 학문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심리학과의 타협이라고 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논거를 반박했다.⁴⁸⁾

첫째, 신앙상담은 수직적인 면(인간-하나님의 관계)을 다루는 반면 심리치료는 수평적인 면(인간-인간관계)에 반응한다는 논거를 반박했다. 수직적, 수평적 삶의 영역이라는 기하학적 묘사는 이 두 가지 인간경험의 실재를 너무 분리하고, 따라서 양자의 접촉 가능성을 제한하는 위험이 있다. 기독교인에게는 수평적 영역과 수직적 영역의 분리가 있을 수 없다. 기독교인의 대인관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의미심장하게 될 성령의 열매(즉, 사랑, 인내, 온유, 양성, 자비와 겸손)는 오직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요 15:5)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약속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출발점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이어야 한다. 이 관계가 올바르다면 대인관계도 명확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능력'과 같은 것도 생기게 된다.

둘째, 심리치료는 성령께서 뚫고 들어오시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한다는 논거이다. 이 말은 우선 아주 매혹적으로 들리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결론이다. 우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기독교 정신분석가인 Rudolf Affemann은 그 장애물들을 '신경증적 소외'라고 칭했다. 그는 심리치료가 인간을 악으로부터 구속하여 치료를 넘어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 행실의 결과들과 신경증적 소외의 흔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치료의 과제는 오랫동안 자신의 법칙을 유지하고 있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심리치료를 통해서 결국 성화가 지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화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심리치료는 무의식의 치료도 가능하게 한다는 논거이다. E. Scharrer은 올바른 상담은 인간의 무의식까지 고려한 상담이라고 보았다. 그는 상담이 치료효과를 가지려면 깊은 인격의 피조성의 무의식 영역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확신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무의식 속을 파헤쳐서 지금까지 그곳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 과연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주장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의식이 정신분석적으로 벗겨지고 작업될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라고 했다(시 17:3).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무의식의 존재를 숨기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에게서도 무의식이 의식으로 드러나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시편 기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시 19:12)라고 기도한다. 시편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의식 또한 치료하실 수 있음을 신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 8:36)고 말씀하신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어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굳이 정신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무의식을 드러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거들은 그럴듯하게는 들리지만 치료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구조들을 제시하고 있다.

(2) 심리학의 위험성

심리학적 견해는 보편적으로 성경의 신앙의 권위와 내용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신앙요소들이 인간 심리에 위협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⁹⁾ 반면에 폐쇄유형에서는 심리학이 기독교상담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Adams는 심리학을 철저히 배척한다.

Antholzer는 심리학에 관한 학문적 성과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돌보는 일(상담)에 활용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한다.⁵⁰⁾ 심리학을 배척하는 학자들은 심리학이 은연중에 교회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학문으로 급성장하고 관련 분야들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교회 사역이 침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에 눈이 멀어 무모하게 심리학을 추종하다보면 교회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에게 심리학적 차원의 '구원'을 제시하였다. 심리학자들이 제공하는 상담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되는 구원은 막연한 미래의 이상 세계가 아니다. 이것은 현대사회가 처한 곤경을 이해하고 개인의 삶을 더욱 성공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열망으로써 긴장과 불안이 지배되는 시대의 문제를 더듬어서 이로부터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불안과 절망을 해결할 만한 통찰을 얻기 위해 심리학으로 눈을 돌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기독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심리학에서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⁵¹⁾ 그와 같은 기대는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을 상담의 원래 목적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데려간다. 기독교상담의 목적은 정신적인 건강(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이 아니라 성화, 즉 기독교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적 특징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목적에는 건강한 정신도 포함된다. 반면에 정신건강을 포함한 심리치료는 자아를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중심에 놓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신앙적인 가치관에 젖어들게 된다.

Heinz Kohut, Rogers, Maslow, Rollo May는 노골적으로 모든 치료의 초점과 핵심가치로 자아를 강조한다. 심리치료자들이 말하는 삶의 궁극적 우선순위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계발해서 자아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Jefferey H. Boyd는 Augustine의 '하나님의 도성'을 언급하면서 자아를 강조하는 심리치료를 세속 도성의 사람이라고 하고, 자아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을 천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일반심리학을 비판했다.⁵²⁾ 즉, 하나님보다 자아를 강조하는 심리학적 치료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존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기독교인이 심리치료 - 자율훈련법이나 체계적 둔감화 -에 의해 두려움이 감소되었다고 할 때,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독교인의 모습에 더 가깝게 될 수는 있으나, 그만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율적인 자아의 삶은 강화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도록 하는데 방해물이 된다. 이러한 자기 성화는 곧 성령의 역사에 대한 면역성을 갖게 한다.

III. 달 는 글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 확립은 상담자 자신과 내담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상담의 성향을 결정짓는 요인을 기독교상담자의 심리학 개방으로 보고 그 정도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개방유형은 기독교상담자가 심리학의 학문적 자료를 신학적 검증없이 무조건적으로 활용하면서 성경활용을 무시한다. 이러한 견해는 발견된 계시인 심리학을 특별계시인 성경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기독교상담의 독특성을 희

석시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수용유형은 기독교상담에서 성경의 활용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심리학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성경을 활용하되 심리학적 원리에 근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진보적인 견해이다. 셋째, 분리유형은 인간의 문제를 신학적인 영역과 심리학적 영역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에는 그 영역을 분리할 수 없는 공통영역이 있기 때문에 신학과 심리학은 통합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고 하여도 신학과 심리학 간에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넷째, 여과유형은 성경신학적으로 심리학을 검증하여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심리학의 학문적 자료만을 적용한다. 이는 주로 복음주의적인 입장이며 심리학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다섯째, 폐쇄유형은 심리학은 사단의 학문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입장이다. 오직 성경만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는 발견된 진리인 심리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전제에 위배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상담의 성향을 상담자가 심리학 개방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보적인 신학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상담자일수록 심리학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수적인 신학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상담자일수록 심리학을 수용하는데 신중하거나 폐쇄적이다. 결론적으로 복음주의 입장의 기독교상담은 심리학을 신학적인 검증없이 활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특히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은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며,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자는 심리학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전인성 회복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용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상담학』. 서울: 학지사, 2006.
- 전요섭. 『기독교상담과 신앙』. 서울: 좋은나무, 2007.
- Antholzer, Roland. *Plädoyer für eine biblische Seelsorge*. 이해란 역. 『심리치료와 성경적 상담』. 서울: CLP, 2005.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Edinburgh: T & T Clark, 1960.
- Benner, David G. *Strategic Pastoral Counseling*. 전요섭 역. 『전략적 목회상담』. 서울: 은혜출판사, 1995.
- Boyd, Jeffrey H. "Self-Concept: In Defense of the Word Soul," McMinn, Mark R. & Timothy R. Phillips. (ed.).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1.
- Capps, Donald E. *Biblical Approaches to Pastoral Counseling*. Oregon: Wipf & Stock, 2003.
- Carter, John. & Bruce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 .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 Theology*. 전요섭 역.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갈등』. 서울: 하늘사다리, 1997.
- Charry, Ellen T. "Theology After Psychology." McMinn, Mark R. & Timothy R. Phillips, (ed.).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1.
- Crabb, Lawrence.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출판부, 1989.
- Greely, Andrew. M. "Popular Psychology and the Gospel." *Theology Today*, 33(1976): 224-31.
- Hurding, Roger. *The Bible and Counseling*. 문희경 역. 『성경과 상담』.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3.
- Jeeves, Malcolm. *Psychology and Christianity: The View Both Ways*.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6.
- Lovaas, O. Ivar. "Behavioral Treatment & Normal Educational & Intellectual Functioning in Young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5(1987): 3-9.
- McMinn, Mark. & Timothy R. Phillips. *Care for the Soul*. 전요섭. 안경승. 강경미. 한숙자. 김영근. 황규명. 이은규. 김태수. 한재희. 심수명. 강병문 공역. 『영혼 돌봄의 상담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McQuilkin, J. Robert. "The Behavioral Sciences under the Authority of Scripture,"

-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Dec, 1975): 71-85.
- Meier, Paul D.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nn &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Christian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전요섭. 안경승. 이은규. 강경미. 한재희. 박행렬 공역. 『기독교 상담심리학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 Oates, Wayne. *The Psychology of Religion*. Waco. TX.: Word, 1973.
- Polanyi, Michael. *The Tacit Dimension*. Gloucester. MA.: Peter Smith, 1983.
- Powlison, David. "The Card of Soul & Modern Psychotherapies." McMinn, Mark R. & Timothy R. Phillips. (ed.).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1.
- Szasz, Thomas S. *Ideology and Insan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0.
- Til, Cornelius Van.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1955.
- Tournier, Paul. *A Place for You*. New York: Harper & Row, 1966.
- . *The Person Reborn*. New York: Haper & Row, 1966.
- Vitz, Paul C. *Psychology as Religion: The Cult of Self Worship*. 2Rev. (ed.). Grand Rapids: Wm. B. Eerdman & Paternoster, 1994.

[후주]

- 1) Donald E. Capps, *Biblical Approaches to Pastoral Counseling* (Oregon: Wipf & Stock, 2003), 24-25.
- 2) John Carter & Bruce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 Theology*, 전요섭 역,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갈등』 (서울: 하늘사다리, 1997), 13.
- 3) Gary R. Collins, *Psy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이종일 역,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서울: 솔로몬, 1997), 95.
- 4) Andrew. M. Greely, "Popular Psychology and the Gospel," *Theology Today*, 1976(33): 224-31.
- 5) Collins, *Psy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97.
- 6) Roger Hurding, *The Bible and Counseling*. 문희경 역, 『성경과 상담』 (서울: 기독교 연합신문사, 2003) 94-96.
- 7) 김용태, 『통합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상담학』 (서울: 학지사, 2006), 97-98.
- 8) R. J. Hunter, H. Newton Malony, L. O. Mills, & J. Patton, *Dictionary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0), 10-69.
- 9) Bobgan, *The Psychological Way/ The Spiritual Way: Are Christianity & Psychotherapy*

- Compatible?*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1978); Mary Stewart Van Leeuwen, *The Sorcerer's Apprentice: A Christian Looks at the Changing Face of Psych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82); William K. Kilpatrick, *Psychological Seduction: The Failure of Modern Psychology* (Nashville: Thomas Nelson, 1982); William Kirk Kilpatrick, *The Emperor's New Clothes* (Westchester, IL.: Crossway, 1985); D. Hunt & T. A. McMahon, *The Seduction of Christianity: Spiritual Discernment in the Last Days* (Eugene, OR.: Harvest, 1985); Don Browning, *Religious Thought and the Modern Psychologies* (Philadelphia: Fortress, 1987); Os Guinness and John Seel, *No God but God: Breaking with the Idols of Our Age* (Chicago: Moody, 1992);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Nutle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2).
- 10)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nn &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Christian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전요섭 외 공역, 『기독교상담심리학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29.
 - 11) David G. Benner, *Strategic Pastoral Counseling*, 전요섭 역, 『전략적 목회상담』 (서울: 은혜출판사, 1995), 44.
 - 12) 김용태, 『통합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상담학』, 34-36.
 - 13) Meier, Minirth, Wichenn &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Christian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30.
 - 14) Lawrence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출판부, 1989), 47-52.
 - 15) Deborah Van Deusen Hunsinger, "An Interdisciplinary Map for Christian Counselors,"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ips, (ed.),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1), 356-65.
 - 16) Hunsinger, *Care for the Soul*, 338.
 - 17) Cornelius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1955), 94.
 - 18) Bryan N. Maier & Philip G. Monroe, "Biblical Hermeneutics & Christian Psychology,"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ips, (ed.),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1), 422-24.
 - 19)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ips, (ed.), *Care for the Soul*. 전요섭 외 공역, 『영혼돌봄의 상담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100-2.
 - 20) O. Ivar Lovaas, "Behavioral Treatment & Normal Educational & Intellectual Functioning in Young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5(1987): 3-9.
 - 21) McMinn & Phillips, *Care for the Soul*. 100-2.
 - 22) David, Powlison, "The Care of Soul & Modern Psychotherapies,"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 (ed.).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1), 45.
 - 23) McMinn & Phillips, *Care for the Soul*. 116-18.
 - 24) Stanton L. Jones, Richard.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1), 27.

- 25) Powlison, "The Care of Soul & Modern Psychotherapies," 29-34.
- 26) Malcolm. Jeeves, *Psychology and Christianity: The View Both Ways*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6), 18.
- 27) John Carter, Bruce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27.
- 28) Meier, Minirth, Wichenn &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Christian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34-35.
- 29) Roland. Antholzer, *Plädoyer für eine biblische Seelsorge*, 이해란 역, 『심리치료와 성경적상담』 (서울: CLP, 2005), 36-37.
- 30) Hunsinger, *Care for the Soul*, 340.
- 31) Karl Barth, *Church Dogmatics* (Edinburgh: T & T Clark, 1960), 437.
- 32) Charry, Ellen T. "Theology After Psychology."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 (ed.),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1), 187-88.
- 33) Collins, *Psychology & Theology*, 47-70.
- 34) Carter &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 Theology*, 14-23.
- 35) Hunsinger, *Care for the Soul*, 339.
- 36) Paul Tournier, *A Place for You: Psychology and Religion* (TN.: Highland, 1988), 135-37.
- 37) Paul Tournier. *The Person Reborn* (New York: Haper & Row, 1966), 217.
- 38) Tournier, *The Person Reborn*, 9.
- 39) Collins, *Psychology & Theology*, 48.
- 40) Wayne Oates, *The Psychology of Religion* (Waco, TX.: Word, 1973). 6.
- 41) J. Robert McQuilkin. "The Behavioral Sciences under the Authority of Scriptur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Dec. 1975): 71-85.
- 42) Michael Polanyi, *The Tacit Dimension* (Gloucester, MA.: Peter Smith, 1983), 36-37.
- 43) Collins, *Psychology & Theology*, 78.
- 44) Thomas S. Szasz, *Ideology and Insan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0), 28.
- 45) Paul. C. Vitz, *Psychology as Religion: The Cult of Self Worship* (Grand Rapids: Wm. B. Eerdman & Paternoster, 1994), 15-20.
- 46) Vitz, *Psychology as Religion: The Cult of Self Worship*, viii.
- 47) Carter &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 Theology*, 45-54.
- 48) Antholzer, *Plädoyer für eine biblische Seelsorge*, 111-20.
- 49) 진요섭, 『기독교상담과 신앙』 (서울: 좋은나무, 2007), 172.
- 50) Antholzer, *Plädoyer für eine biblische Seelsorge*, 25.
- 51) Carter &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 Theology*, 14.
- 52) Jeffrey H. Boyd, "Self-Concept: In Defense of the Word Soul,"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 (ed.),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1), 164-65.

【 Abstract 】

Tendency of Christian Counseling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Psychology Openness

Park Ki Young
(Sungkyul University)

This researcher is to clarify that Christian counseling varies according to counselor's theological & psychological background. This researcher presumed that openness of psychology is a major factor that represents the tendency of Christian Counseling.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Counselor's psychological openness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which decides Christian Counseling tendency. Tendency of Christian Counseling in accordance with openness of psychology of Christian Counsellor was classified into 5 types.

First, opened type. Christian Counsellor makes best use of reference materials for psychology in counseling, and adopts very open posture to psychology. And they are unconcerned with using the Bible & the theological resources.

Second, accepted type. This is a standpoint not to lose an identity of Christian Counseling, whilst admitting psychology. But, They take a little more conservative posture than opened type.

Third, separated type. They hold a position to separate the area of expertise, whilst they approve theology and the authority of psychology on equal term.

Fourth, filtered type. They use the topics that would not turn out to be the problem connected with Bible after having filtered psychology by means of theology. Evangelical Counselors take this type.

Fifth, closed type. They adopt a closed posture toward psychology. They don't need psychological assistance any more, because they believe that only the Bible can solves counselee's problem enough.

Taken above research results together, Christian Counsellors should know their own tendency toward theology, and openness of psychology. In Conclusion, The evangelical view of Christian counseling is to use the psychological resources filtered theologically, not reject it unconditionally. Also, when conducting counseling having established counseling skills based on such a type they will be able to provide for efficient helps to clients.

Key words: opened type, accepted type, separated type, filtered type, closed type.